

# 쉬운 (易) 주역 풀이

2023 계묘년 4월 18일 택천쾌  
Acro 404 차 강의

한얼연구소 김철호 소장

第一太極圖

坤  
五  
一  
圖  
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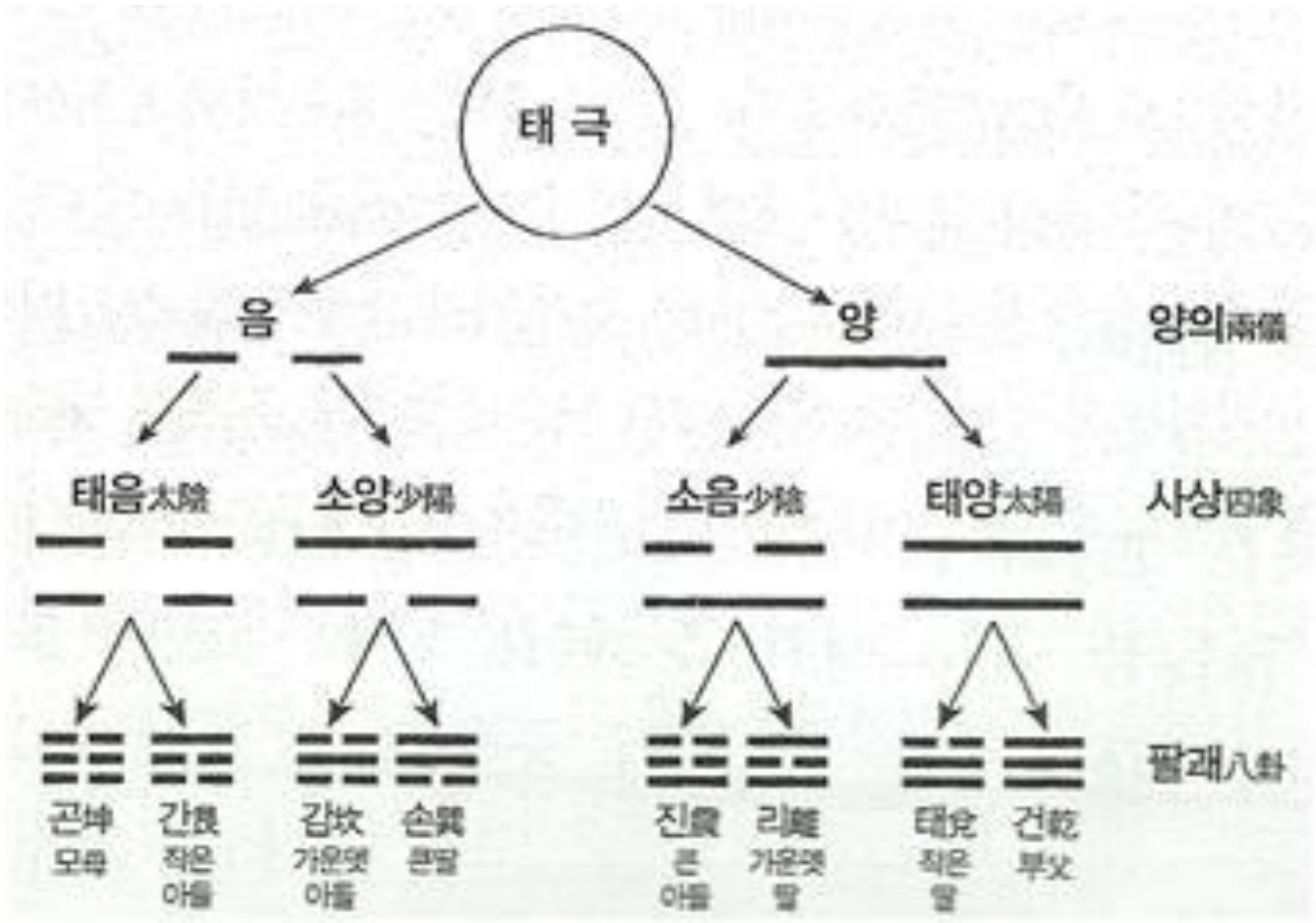
此無極二五所以妙合而真也  
此若坤士以氣化者言也  
性而男也一其性而萬物一  
形化者言也亦一其性而萬物一  
性也

乾  
道  
成  
男



生  
化  
物  
為

此所謂無極而太極也即陰陽而  
指其本體不離乎陰陽而為言耳  
此之動而陽靜而陰也中者其  
本體也者之根也(者)之根  
也此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  
土也  
坤  
道  
成  
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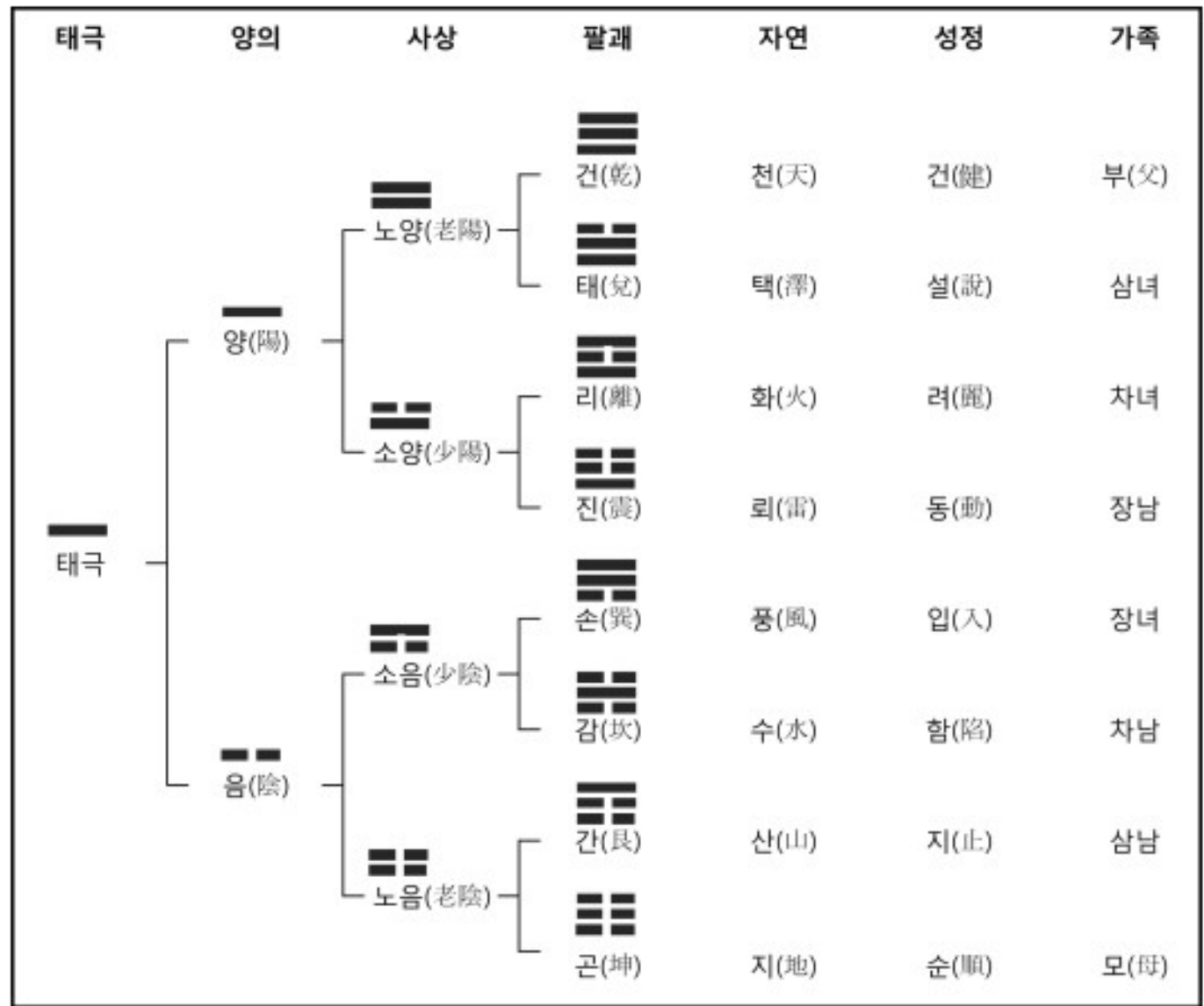


# 건태리진손감간곤 팔괘 짚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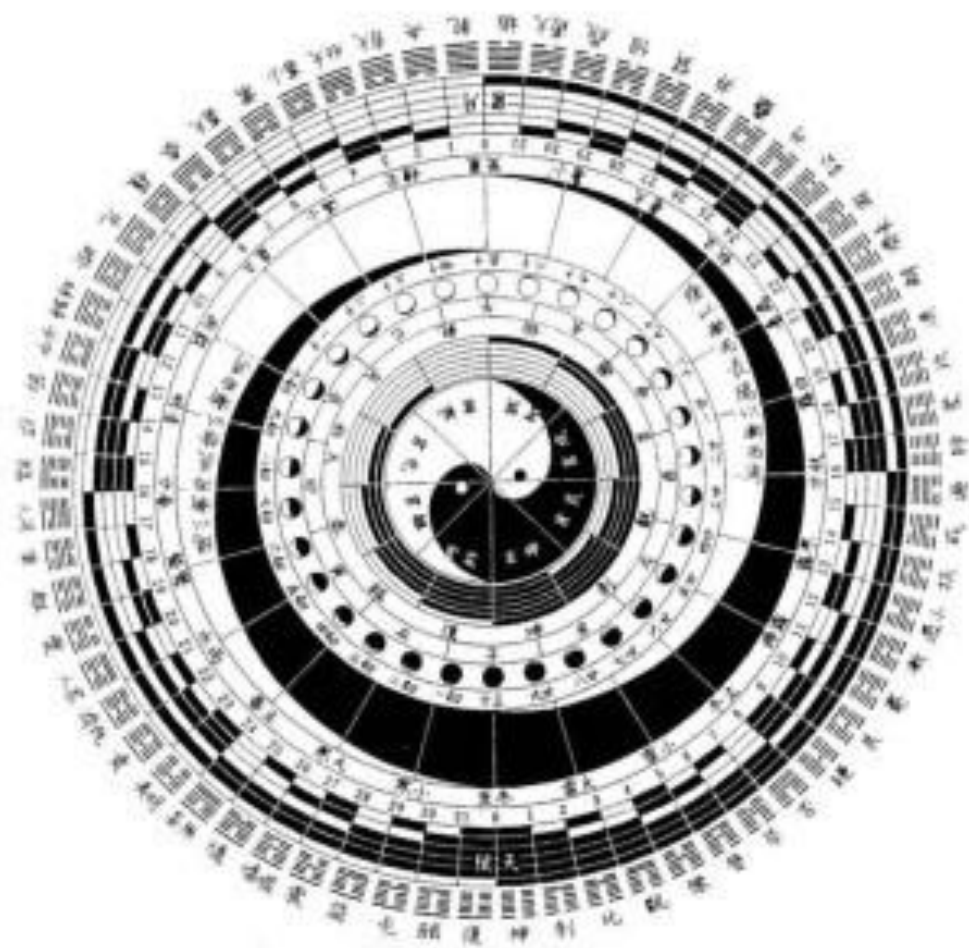
 <p>② 二中天醫 (巽下絶) ䷸ 辰巳</p>	 <p>④ 四中遊魂 (離虛中) ䷄ 午</p>	 <p>⑧ 八中歸魂 (坤三絶) ䷁ 未申</p>
 <p>⑤ 五上禍害 (震下連) ䷲ 卯</p>	<p>八卦(팔괘) 掌中法(장중법)</p>	 <p>⑥ 六中福德 (兌上絶) ䷹ 酉</p>
 <p>① 一上生氣 (艮上連) ䷳ 丑寅</p>	 <p>⑦ 七下絶命 (坎中連) ䷜ 子</p>	 <p>③ 三下絶體 (乾三連) ䷀ 戌亥</p>

태극품새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팔괘명	건 (乾)	태 (兌)	리 (離)	진 (震)	손 (巽)	감 (坎)	간 (艮)	곤 (坤)
자연현상	하늘 (天)	연못 (澤)	불 (火)	우뢰 (雷)	바람 (風)	물 (水)	산 (山)	땅 (地)
인체	머리 (頭)	입 (口)	눈 (目)	다리 (足)	허벅지 (股)	귀 (耳)	손 (手)	배 (腹)
성정 (性情)	씩씩하다 (健)	기쁘다 (悅)	빛나라 (麗)	움직이다 (動)	들어가다 (入)	빠지다 (陷)	그치다 (止)	순하다 (順)

(안경전, 2015 「甌山道の 眞理」 참고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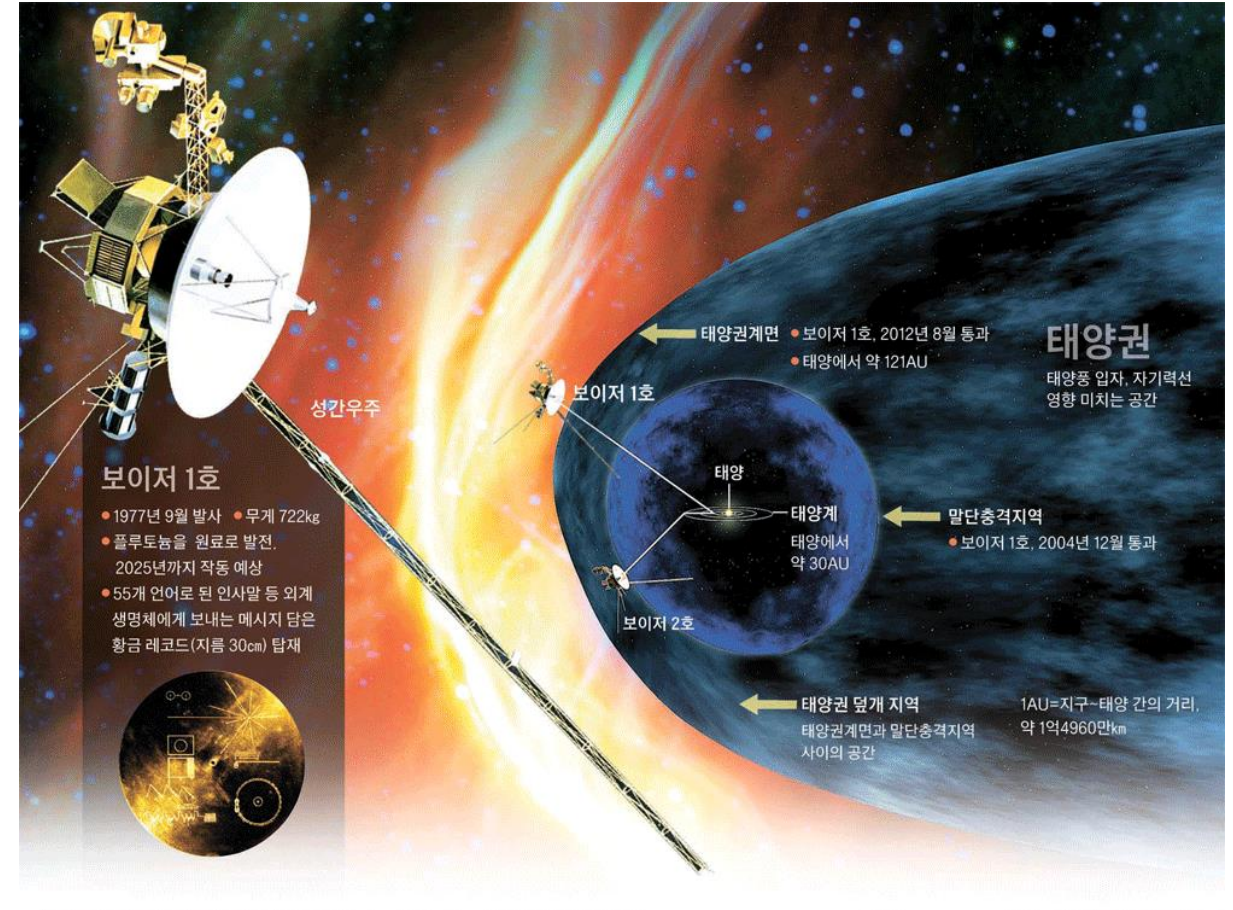


# 제 1강 주역의 기초 음소와 기본 단어

주역과 동시성의 원리

물질계 = 인과율적 역학작용  
정신세계 = 감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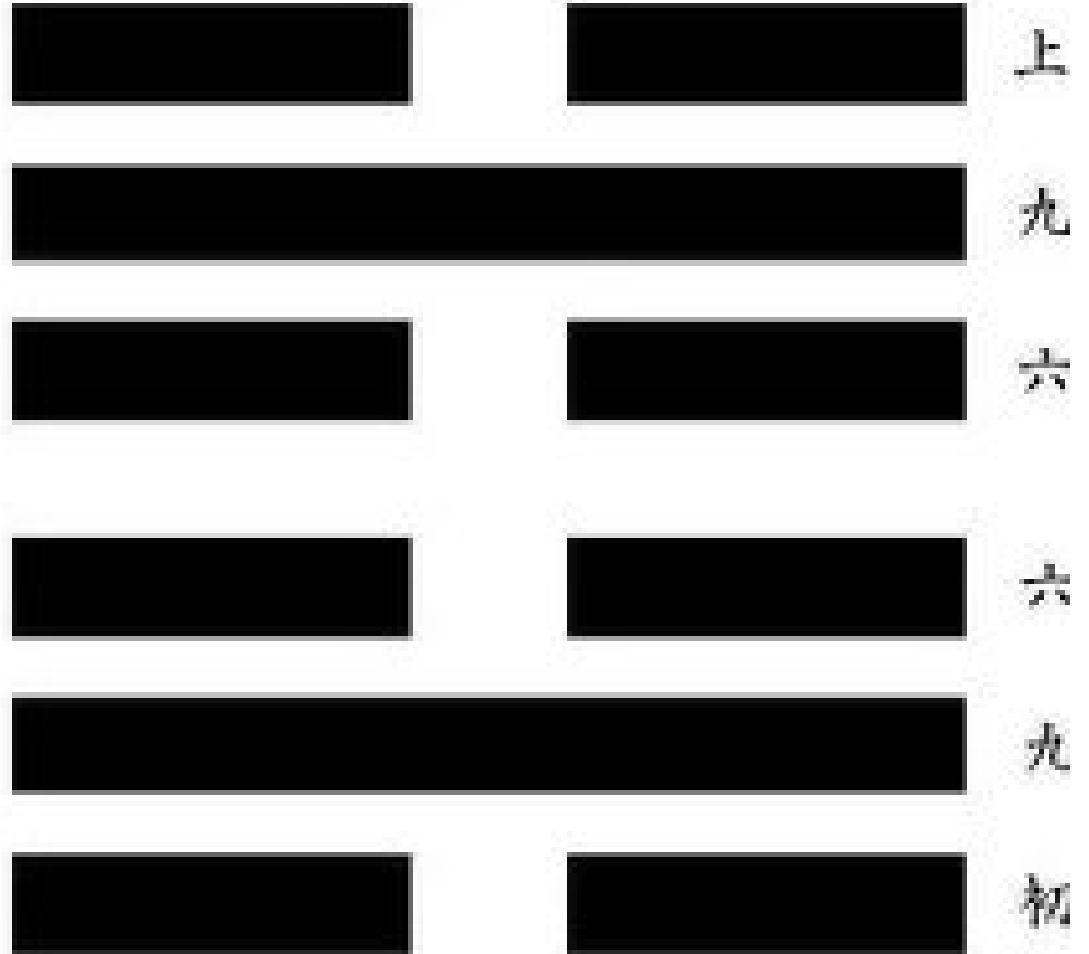
2017년 6월 8일 오전 8시경  
양산시 덕계동의 모 아파트  
어느 비정규직 청소 용역  
노동자의 죽음 (25쪽)





# 괘는 효로 이루어진다

- 짓는 效다.
- 가장 기본 단위 음효와 양효.
- 음양, 사상, 팔괘 이진법 수리
- “효는 천하의 움직임을 본받은 것이다.” - 계사전 하
  
- 삼효로 소성괘 = 8 괘
- 두 개의 소성괘로 대성괘 = 64괘
  
- 64괘 384효에 우주와 인간의 비밀이 쓰여있다.



# 괘사와 효사 해석의 구조

## <전체 괘사>

習坎 有孚 維心亨 行 有尚.(습감 유부 유심형 행 유상)

습감은 믿음이 있어서 오직 마음이 형통하니, 가면 숭상함이 있으리라.

## <각 단계 효사>

初六은 習坎에 入于坎窞이니 凶하니라.(초육 습감 입우감담 흉)

초육은 習坎에 구덩이(坎窞)에 들어감이니 흉하니라.

먼저 괘상을 보면, 위에도 감중련 물괘이고, 아래에도 감중련 물괘다. 중수감은 물이 거둬 겹쳐진 괘이다. 그래서 거둬된다는 '중(重)'을 써서 이 괘상에 중수감(重水坎)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는 감위수(坎爲水)라고도 한다.

'감(坎)'은 구덩이에 빠지다는 뜻이어서 험한 글자다. 다시 말하면 물이 흘러 땅에 구덩이가 파이면서 험해진 것이다.

중수감은 비록 험하긴 하지만 가운데가 양괘로 중실(中實)한 상이다. 물론 중수감은 빠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두운 밤과 추운 겨울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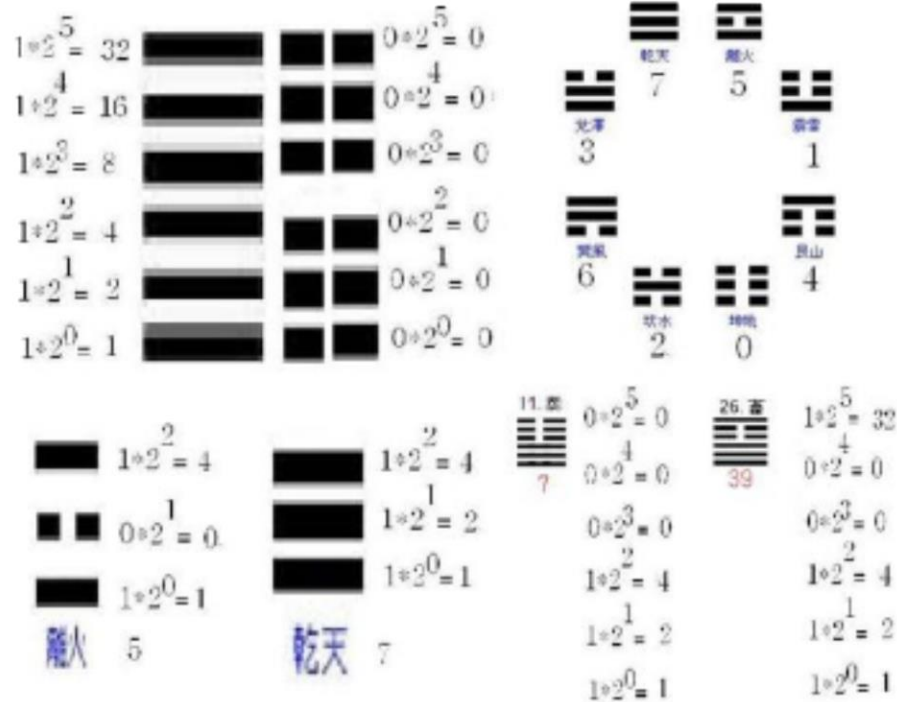
# 역은 상으로 풀이된다

• 상을 세워 뜻을 다하였다.  
(聖人立象以盡意) - 계사전

• <상사> 象辭 풀이하는 말

• 象曰 習坎入坎은 失道 | 라 凶也 | 라.

• 상에 가로되 '習坎入坎'은 도를 잃음이라 흉하니라.



# 음양 사상 팔괘 외우고 그려보기

- 주역의 가나다라 ABCD.
- 천택화뢰풍수산지
- 건태이진손감간곤
- 태극기에 건곤감리 천지수화
- 나머지 태진손간 택뢰풍산



# 음양을 말하다: 반대/상대/대대 reciprocal

양 陽	낮 晝	여름 夏	남 南	열 熱	화 火	명 明
음 陰	아침 朝	봄 春	동 東	온 溫	수 水	암 暗



# 음양을 말하다: 운동과 방향성

양 陽	상 上	좌 左	외 外	말단 末端	출 出	승 昇	부 浮	철 凸
음 陰	하 下	우 右	내 內	중심 中心	입 入	강 降	침 沈	요 凹

# 음양을 말하다: 인간, 인체

양 陽	남 男	유 幼	외측 外側	척배 脊背	상부 上部	육부 六腑	위 衛	기 氣
음 陰	여 女	노 老	내측 內側	흉복 胸腹	하부 下部	오장 五臟	영 營	혈 血

# 중용 22장 參天地 化育

어떻게든 애써 하는 바가 있어  
세상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길이다.

달리 하는 바가 없어도 세상 만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인간에게 달린 그 일을  
힘써 닦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길  
뿐이다.

어리석은 이는 혹시나 하고 하늘에만  
구하여 사람이 애써하면 성취할 수  
있는 일에조차 소홀히 한다.

- 夫有所爲而然者人也,  
莫之爲而然者天也.  
智者修其在人而任其在天,  
愚者求其在天而忽其在人.

<율곡전서>

拾遺 券5 雜著2 神仙策

# 제2강 주역의 기초문장: 소성과 대성과

- 길흉화복은 식색과 재력, 권세에 달려
- 나의 재산은?

Private property is the base of a free society.

- 내 자식 손주 새끼들은?
- 내가 속한 가족, 가문, 동기, 동창, 동향
- 민족 공동체의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은?
  
- 국권 상실 - 독립 - 분단 - 통일
- 인생칠십<sup>古</sup>래<sup>稀</sup>의 나이 깨달음
- 가지고, 버리고, 남기고 갈 것은?

인간은 오직 **물질적 감각**성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간다. 한 개체로서의 자신의 **이익**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알지 못하며, 맹목적인 **우연** 이외에는 다른 어떤 원인도 알지 못하기 마련이다.

이때 인간의 이익동기가 행위의 결정자가 되고, 자유의지나 선의가 아닌 우연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되고만다.

프리드리히 쉴러 (1759-1904) <미학 편지>

# 주역의 기초 알파벳과 단어: 음양 사상 팔괘

- 가나다라, 알파벳

- 음과 양 2개,

- 크고 작음으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4개

- 기초 단어

- 건태이진손감간곤

- 천택화뢰풍수산지 각 8개

팔괘를 읽는 전통 방식

-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뢰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 천택화뢰풍수산지 소성괘 (小成卦)

- 음과 양, 그리고 둘 사이의 대대적 관계가 3획을 그어 하나의 작게 이루어진 괘가 나온 것이다. 한자어로는 소성괘 (小成卦)라고 한다
- 소성괘 8개를 주역의 기초 단어(혹은 단문 simple sentence)
- 건삼련 곤삼절 진하련 간상련 감중련 이중허 태상절 손하절.

- 한 획을 그어 초효를 만들고 두 번째 획을 그어 2효를, 세 번째 획으로 3효를 만들어 소성괘가 이루어졌으나 한 효 한효는 변화한다. 음효가 양효로 양효가 음효로 변한다. 효란 본받는다라는 뜻의 효 에서 따온 글자다.
- 괘에는 겉 모습과 속 모습이 있는데, 천택화뢰 풍수산지로 표현되는 **사물의 겉 모습**이다. 건태이진 손감간곤은 **괘의 속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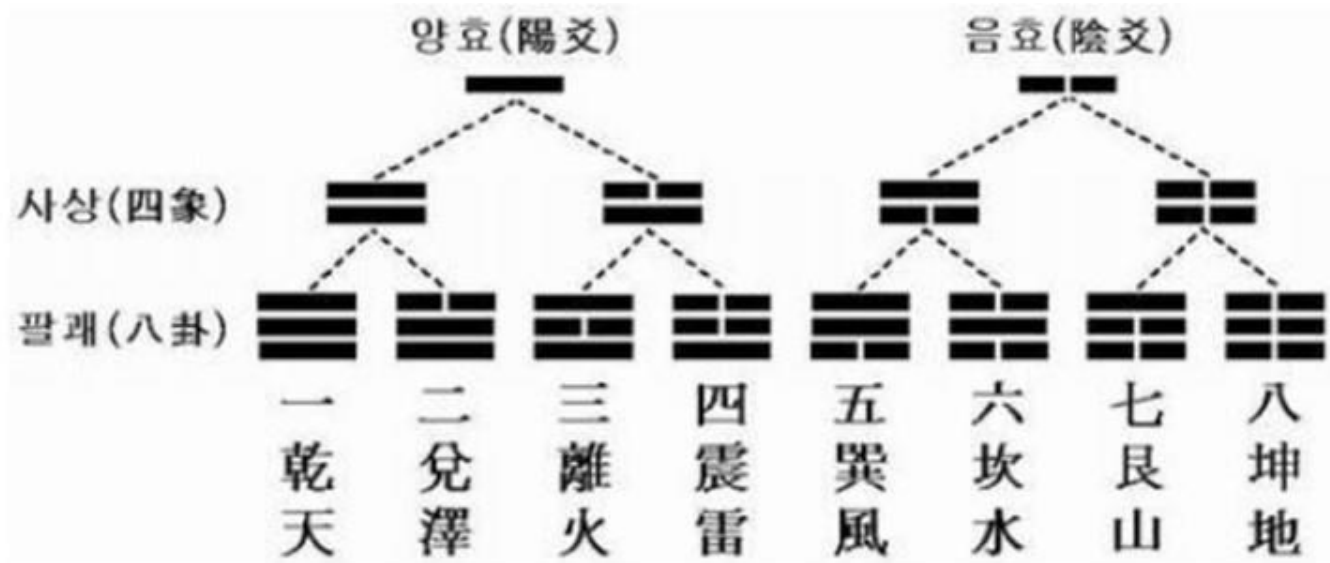
# 음양 중에 수가 적은 것이 주인효다

- 또한 3개의 효로 이루어진 과에는 주인효와 손님효가 있다.
- 세 효를 음양의 숫자로 세었을 때 그 숫자가 적은 것이 주인효라고 할 수 있다.
- 무엇이든 수가 된다는 것은 그 수가 적다.

1. 천지
2. 수화
3. 산택: 유형의 형질
4. 퇴풍: 무형의 기운

# 음양 사상 팔괘 그리기 연습

- 작괘(作卦) 3가지 원칙
  1. 양 먼저 그리고
  2. 아래에서 위로
  3. 막히면 다시 次下로



# 팔괘가 표상하는 자연 현상들



위의 태괘는 연못을 표상한다. 무언가를 담는 모양. 담는 것에는 자루, 가방, 지갑, 주머니 등. 담아주므로 포근한 것은 고향, 단골집. 호수처럼 침착하고 평정한 마음. 반대의 상인 바람은 움직이고 요동치고 덜렁대는 상태. 교양, 절제력, 침착함도 태괘의 상이다.



손괘는 바람인데 새와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표상한다. 냇물처럼 흐르는 것, 풍문, 소식, 유행 등을 뜻한다. 시원하게 트여있는 곳, 별판의 이미지도 풍이다. 생기발랄, 방랑, 타향, 노출을 뜻한다. 태괘와 풍괘는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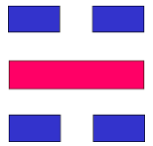
간괘는 산이다. 거대하게 막아 선 느낌. 비를 막아주는 우산, 방패, 철모. 신용이 있으면 산, 없는 것은 풍. 군대가 산인 이유는 지켜주기 때문. 침묵, 단절, 위축, 긴장 또한 산이다. 흘러가고 있는 것이 풍이라면 멈추어 있는 것이 산이다.



뢰는 우레처럼 큰 움직임의 시작이다. 징기스칸의 20만 대군이 끝없는 별판을 휩쓸고 움직이는 기상 같은 것이 뵈다. 용의 움직임, 탱크의 진군. 군대의 움직임과 소풍 가는 사람들. 심각한 대화와 농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뵈다. 법정 판결과 광고 CM 송

택과 뵈는 움직이지 않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풍과 뵈는 움직인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움직임에도 강약이 있고, 멈춤에도 강약이 있다. 태어남은 살려는 목표를 가졌으므로 뵈이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변화무쌍한 인생은 풍이고, 어느정도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결실을 맺는 것이 택이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죽음은 산이다.

# 주역 팔괘의 표상



수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 자유로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이 수의 상이라 할 수 있다. 어두움과 방황, 혼돈, 무질서, 근심도 수의 상이다. 고독, 연애, 파란만장한 운명도 그렇다. 수는 또한 휴식이고, 신비이고, 미궁이며, 미래다.



화는 밝음이고 질서다. 희망이고 가능성이다. 화가 이성이라면 수는 감성, 화가 문명이라면 수는 야만, 화가 아름다움이라면 수는 추함, 화가 긍정이라면 수는 부정이다. 완성과 미완성, 웃음과 울음, 진보와 퇴조, 탈출과 감금, 논리와 감성, 지성과 무지 등등 술한 사물들이 화와 수로 대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역의 기초 단어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어 앞으로 64 대성괘를 해석하는 데 기본 의미가 된다.



# 대성과 64과의 표상도 각기 다르다

- 화지진 – 지풍승 – 풍산점 – 산화비 (변화, 발전의 속도)
- 수택절 – 택화혁 – 화산려 – 산수몽 (보호에서 과보호로, 다시 자유와 방종으로)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는 미래를 알아서는 안된다는 자연법칙을 말한다.

하지만 주역에서는 미래 예측을 인정한다.

8 가지 소성과로 사물 분류 이해하듯 64 개의 대성과로 세상 만사를 해석한다.

# 請命 稟命 順命; 다산의 易學緒言

- 역은 卜筮로서 神託을 받는 것
- 천명을 품부받기 위한 수단
- 청하여 받으며 따른다
- Oracle, Divinity, Revelation
  
- 인식능력 한계 뛰어넘어 神通
- 초월적 조물주 아닌 내재적 자연신. 범재신론.

- 전통적 역학 = 상수역 + 의리역
- 다산 정약용의 역학 = 종교역
- “周易四箋 吾得天助之 文字.”
  
- 동학, 정역, 증산 후천 개벽
- 소강절(1011-1077)  
원회운세(元會運世) 129,600년

# 소강절(1011-1077)의 원회운세(元會運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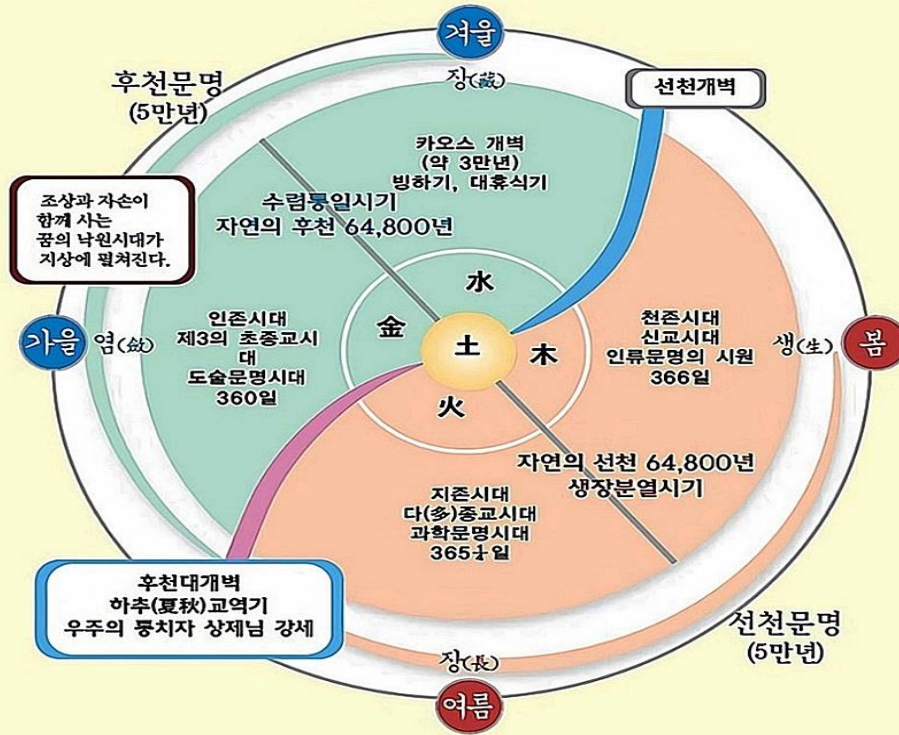
태양계 천지의 이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순환이다.

자연 법칙 시간의 사이클은  
일점일획의 어김도 없이 정확한  
원리로 돌아간다.

**순환주기의 규칙성 발견**  
(12-30-12-30-12-30 반복)

1초---->60초	1분
1분×60	1시(時)
(1분×60=1시)×12	1일(하루)
(1분×60×12=1일)×30	1월(한달)
(1분×60×12×30=1월)×12	1년
(1분×60×12×30×12=1년)×30	30년=1세
(1분×60×12×30×12×30=1세)×12	360년=1운(12세)
(1분×60×12×30×12×30×12=1운)×30	10.800년=1회(30운)
(1분×60×12×30×12×30×12×30=1회)×12	129.600년=1원(12회)

# 우주의 1년, 4계절 변화 원리



우주 1년 129,600년

안운산 증산도 태상종도사님께서 해방 다음 해인 1946년에 우주론에 대한 깨달음의 정수를 그림으로 그려 도생들에게 내려주셨다. 증산도의 선후천 개벽사상을 동양의 우주 변화 원리와 결합시켜 인생과 우주의 문제에 대해 종교와 철학과 과학의 종합 논리로 명쾌하게 풀어준다.